


창요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21-1122-8827, 0815-1066-5868



VOL. **71**
2022 / 11

OK컨설팅 

건설면허1달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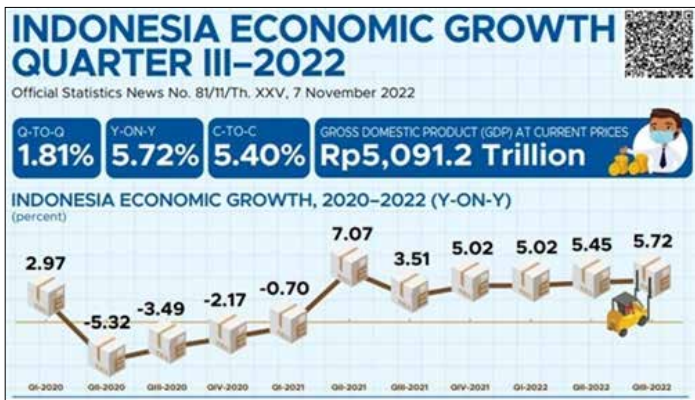
인허가/비자/세무/부동산/여행사
사무실 연락처 : 021)7504-578
한국인 연락처 : 0852-8185-5551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자원 부국 인니, 3분기 GDP 연 5.72% 성장... 예상치에는 밀돌아

4분기 연속 연 5%대 성장...수출·투자·민간소비가 성장 이끌어
세계 경제 둔화에 원자재 가격 하락 전망 ... 수출에 악영향 우려



▲ 인도네시아 분기별 경제 성장률(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제공)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4분기 연속 연 5%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7일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5.72% 늘었다.

지난해 4분기(연 5.02%)와 올해 1분기(연 5.01%), 2분기(연 5.44%)에 이어 4분기 연속 5%대 성장세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1.81% 성장한 수치다.

이처럼 5%대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덕분이다. 석탄과 가스, 금, 니켈, 팜유 등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 덕에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3분기 수출은 1년 전보다 약 21.64%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투자도 1년 전보다 4.96% 늘어나며 성장세를 가속했다. 인도네시아는 몇 년 전부터 외국 자본이 원자재를 채굴

해 바로 수출하지 않고 채굴한 원자재를 제품 형태로 가

공해 수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덕분에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중상위 소득층의 지출 증가에 힘입어 5.4% 증가,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각종 사회보조금을 늘린 상태다.

이처럼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BI는 인플레이

션을 억제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난 달까지 기준 금리를 1.25%포인트 올렸다.

금융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BI가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여유가 있어 이번 달에도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금 같은 경기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많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에도 5%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요 위축으로 원자재 가격도 하락,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당장 인도네시아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연 5%대의 성장률을 이어갔지만, 금융시장 전망치(연 5.89%)에는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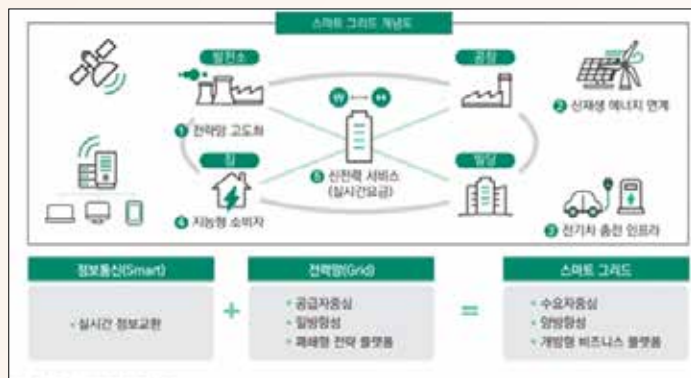
경제 연구 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레스 리더는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세계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하면 인도네시아의 수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긴축 재정 정책 또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협 “스마트그리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공략해야” 전력공급 안정화 위해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시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은 7일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관찰·통제하여 전력망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규모는 2021년 360억달러에서 연평균 18.2%씩 성장해 2030년에는 약 160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스마트그리드 기업의 진출 유망 국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 4개국을 선정했다. 4개국의 경



▲무협은 베트남 등 아시아 4국에서 전력 손실률을 낮추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우 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가운데 기업환경도 우수해 진출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도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AMI),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

크로그리드 및 전력저장시스템(ESS)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호치민 전력공사와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트릴리언트가 2025년까지 하노이와 호치민에 약 100만대의

AMI를 설치할 예정이며 에너지 손실률 감소를 위한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구축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설치 수요가 소규모 섬 단위 위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 자급자족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다.

인도는 2017년부터 올필리핀은 약 7000여개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에 취약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ESS 도입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김문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피니언뉴스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간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2년 기준 Rp 2,773,590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² (2022년 기준)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9. 문의처 : munsccb@muns.id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cb@muns.id, munsccb33@gmail.com
www.muns.id

안보 위협에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손익계산 바꾸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0년 1월8일(현지시간) 나투나 제도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제공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친밀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미 보잉사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구매를 고려 중이다. 또한 미군이 필리핀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협정 협상에 힘을 싣고 있다. 이전 정권이 미군과 합동 훈련을 중단하고 중국산 무기를 사려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때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독립 이후에도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나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친중 행보를 밝으며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년 취임 후 베이징을 방문해 “이제 워싱턴과 결별할 때”라고까지 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준 것을 두고 “우리의 은인”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러나 친중 정책이 별다른



▲1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장 앞에 회원국 국가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린다. 로이터연합뉴스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서 필리핀해(중국명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터져 나오며 필리핀 내에서 반중 감정이 다시 불거졌다. 2016년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은 중국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중국은 여전히 남중국해 90%가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에 외교적 항의를 405건 이상 전달했다. 중국이 서필리핀해에서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필리핀은 2017~2022년 사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국방예산을 증액했다.

인도네시아 또한 미국과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보잉사 전투기 수십대 구입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250억달러(약 171조6000억원) 규모 군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외교적으로 어느 한 축에 치우치지 않는 비동맹 노선을 오래도록 펼쳐왔지만, 나투나 제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안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직접 나투나 제도를 방문

하기도 했다. 나투나 제도에 군함도 여러 차례 파견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투나 제도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영유권을 주장하며 선포한 경계선인 ‘구단선’ 부근에 있다. 나투나 제도 자체는 구단선 바깥에 위치하지만 인도네시아의 EEZ 일부가 구단선과 겹친다. 중국 어선과 정부 선박이 나투나 제도 근처까지 넘어오는 일이 잦아서 문제가 돼왔다.

미국과 중국은 동남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분투해왔다. 그러다 최근 중국이 군사개발을 가속화하고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일부 국가가 태도를 바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이안 스토리 선임연구원은 “미·중 갈등과 중국의 위협이 이 국가들이 국방을 강화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분명한 동인”이라고 밝혔다. 발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전략 방정식의 중요한 요인이며 모든 이들의

이해관계에 이것이 반영됐다는 점이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부터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선다. 미·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며,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정상과도 회담한다. 앞서 미국은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와의 안보 강화 및 협력에 반색한 바 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하며 미·필리핀 관계를 “철통”이라고 불렀으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했다.

이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저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국장은 중국이 특히 필리핀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추세를 주목하면서 동남아 일부 국가에 미국과 너무 밀접해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인도네시아 시설안전 ODA사업’ 자카르타 워크숍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하 시설안전 ODA사업)과 관련한 워크숍을 9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적개발원조 방식으로 진행중인 시설안전 ODA사업은 인도네시아 특수교 통합관리체계 수립을 목표로 관리원이 민간기업인 이제이텍, 다음기술단 등과 컨소

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도로국 공무원, 현지 전문가 등 50여 명과 사업수행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 간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6월부터 12주 동안 한국 초청연수에 참여했던 현지 직원들이 연수성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

다. 한편, 같은날 관리원 이용강 부원장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교량건설과장이 특수교 통합관리시스템의 확장 적용을 위한 후속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행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 기업들의 추가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이 기대된다. 이용강 부원장은 “건설·시설안전 분야의 해외진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설안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열린 ‘국가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워크숍 현장 /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ODA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내년경제] 한국 성장률 1%대로 추락 가능성...일자리 한파도 불가피

연구원·국제신평사 등 1%대 전망 속속 가세...수출·내수 동반 침체 대형위기 때처럼 잠재성장률 밀돌 가능성...내년 취업자 증가 '올해의 10분의 1'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각종 경제 지표가 점차 어두워지면서 내년 한국 경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출이 흔들리고 있는데다 내수 전망도 밝지 않다.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 고용 상황도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민간 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선을 밀돌 가능성을 속속 제기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성장률 2%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성장률을 2% 가깝게 유지해줄 만한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수출은 둔화하고 있고 내수와 소비도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금리 인상으로 기대만큼 많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다 자금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기업 투

자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도 2%대 성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금리 인상 여파도 미쳐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우려된다. 기업 자금시장도 불안하고 부동산가격 폭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세미나에서 1.9% 성장 전망을 언급했다. 피치도 1.9%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3%를 제시하는 등 국제기구들은 2%대 초반으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를 전망했는데 KDI는 조만간 기준 전망치를 하향해 수정 전망을 할 예정이다.

만약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다면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0.7% 등 대형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한은이 보는 잠재성장률 2.0%도 하회하게 되는데,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밀돌 사례도 대형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흔치 않다.

내년 한국 경제가 사실상 대형위기나 다름없는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워지고 성장률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도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 달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공개할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놔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6%였는데, 이보다 얼마나 더 낮출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성장률 하향과 함께 물가, 고용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 기록한 6.3%가 정점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후 5%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외식 등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공공요금 인상 영향까지 있어 빠르게 물가가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달 크게 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내년에는 경기 하강에 역기저 효과가 겹쳐 상당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한파'도 불가피해 보인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1천명에서 내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8만4천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도 6월 전망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올해 60만명, 내년 15만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인도네시아와 자원공급망·청정에너지 협력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화상으로 제13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열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투투카 아리아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 등 양국 에너지 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양국은 지난 2월 체결한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표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 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진행 중인 해상 가스전 탐사 등도 논의했다.

또 중부발전의 수력발전사업, SK E&S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구축 및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그린수소·암

모니아 생산시설 구축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도 논의했다.

양국은 에너지 안전관리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갱신해 전기·가스안전 정보교류와 정책 컨설팅도 해나가기로 했다.

천 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니켈 생산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4위 공급국"이라며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협력관계를 구축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중국 자본 · 기술’ 인니 첫 고속철 사업비 ‘눈덩이’ ... 2조원 늘어

중국개발은행 대출 · 주주사 증자 등으로 사업비 총당
시진핑, 조코위 ... 발리에서 온라인으로 시운전 참관



▲고속열차 둘러보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자본과 기술로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총사업비도 당초 예상보다 14억5천만 달러(약 2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 증가분은 대부분 중국 은행의 대출로 총당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텀포 등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고속철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인도네시아·중국 합자회사(KCIC)의 드위야나 슬라멧 리야디 회장은 전날 의회에 출석해 당초 60억 달러였던 사업비가 14억5천만 달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 수용 보상금 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사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비가 급증했다” 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사업 초과액(20억 달러)보다는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CIC는 초과하는 사업비의 약 4분의 3인 10억 3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는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총당하며 나머

지 비용은 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IC의 주요 주주인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는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며 또 다른 주주인 중국철도공사 등 중국 국영 기업들도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3의 도시 반둥까지 142km 구간을 연결하는 이 사업은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0조 원이 넘는 이 사업은 사업비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총당하고 나머지는 25%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등의 출자금으로 채워진다.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반둥에서 착공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토지수용 절차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KAI 측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오는 16일 진행되는 고속열차 시험 운영을 발리에서 온라인으로 참관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시 주석이 반둥을 찾아 직접 고속열차에 탑승하는 행사를 추진했으나 일정 문제 등으로 온라인 참관으로 대체됐다.

[연합뉴스]



김재훈의 세무상식

세무조사중 매입부가세를 발견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할까?



김재훈 대표

무조사시 누락된 매입부가세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세무조사중이라도 SPHP를 전달 받기 이전에는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부가세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세무조사중 매입부가세를 발견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법(옵니버스법) 시행 이후에는 세무조사관이 SPHP(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제출 전까지는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PMK 18/2021 의 첨부 사례에 잘 예시되어 있다. 사례 1)

PT. L 은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이다. PT. L 은 2016년부터 부가세 과세 등록(PKP)을 하였다. 2020년 8월 PQR 세무서에서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부가세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세무조사 기간중 PT L은 2018년 2월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세가 신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세무조사관이 SPHP 를 2020년 10월 20일 PT. L에 제출하였다.

– 2020년 일자리창출법은 2020년 11월 2일 에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이전에 SPHP 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PT. L 의 매입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다. 사례 2)

PT. M 은 사무기기 거래를 하는 납세자이다. PT. M 은 2017년부터 PKP 로 등록하였다. PT. M 은 2021년 10월 TUV 세무서로부터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부가세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년 7월 매입부가세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세무조사관은 과세분야의 법률 조항에 따라 누락된 매입부가세를 고려하였다.

– 2020년 11월 2일 시행 이후에 SPHP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누락된 매입부가세는 공제하여야 한다. 일자리창출법 이전에는 세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세무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인니, 세컨드홈 비자 도입... 1억8천만원 있으면 최대 10년 거주



▲인도네시아 발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산가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일명 ‘세컨드 홈’ (Second home) 비자를 도입한다.

26일 일간 콤포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전날 세컨드 홈 비자라 불리는 새로운 비자 정책을 마련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며 투

자와 관광 등 다양한 비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0억 루피아(약 1억8천300만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인터넷과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비자 발급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대 5년간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연합뉴스]

PT. KUMGANG INTERNATIONAL



비상구 스틸도어 (PANIC BAR)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자동문과 스틸 셔터 모터 시장을 금강이 시작 합니다!



- 알루미늄 접이식 롤딩도어
-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 방화문 & 패션도어
-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Ruko Fifth Avenue Jl. Boulevard Gading Serpong
Blok A/28, Kab.Tangerang – Prov Banten 15810
TEL : 021. 5568. 5408 Email: ptkumgang@gmail.com

Factory :
Jl. Pengampelan RT.06/RW.03
KP. Nambo Kaserangan Ciruas 42182 Serang, Banten
TEL : 0254. 8285. 258

울산과학대 인도네시아 산업부 공무원 대상 울산 생태산업단지 구축 경험 전달

울산과학대가 최근 인도네시아 산업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울산의 생태산업단지 구축 경험을 전달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해외 감축 사업의 하나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생태산업 개발을 통

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과학대는 환경 및 친환경에너지컨설팅 전문기업인 에코시안과 컨소시엄을 구성, '인도네시아 찰레곤 산업단지 대상 생태산업개

발사업'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태산업단지 사업의 도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유엔공업개발기

구(UNIDO)의 GEIPP(Global Eco-industrial Park Program, 2019~2022)를 통해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관계자는 산업부 산업단지감독부 국장 및 부국장, 찰레곤 산업단지 매니저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6일 입국해 7일은 서울에 있는 에코시안을 방문했고, 8일에 울산으로 이동해 한국에너지공단을 방문했다.

9일에는 울산과학대를 방문해 생태산업 전문가인 울산과학대 화학공학과 박흥석 석좌교수에게 '한국 생태산업 추진전략 및 성과-울산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공무원의 연수프로그램을 기획한 울산과학대 박흥석 석좌교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일자리의 원천인 산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을 최적화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성공한 한국의 산업화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울산의 생태산업단지가 있다.



▲ 울산과학대 전경 / 사진-울산과학대 제공

앞으로 인도네시아 찰레곤 산업단지 대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울산과학대가 개발도상국의 생태산업단지 개발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과학대는 인도네시아 찰레곤 산업단지 대상 생태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지방의 산업단지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생태산업단지 정책설계 및 역량강화(2024~2025)'외 교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신청했다. 더불어 이 사업과 맞물려 500만 달러(한화 약 68억6천7백만 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생태산업단지(EIP) 조성사업(2025~2029)'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베리타스알파)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 1, 개요**
주요대상 :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 2, 광고혜택**
년간계약을 기본으로하며 계약시 광고디자인 무료
기업 홍보기사 전면으로소개
-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21 1122 8827**
e-mail : **khong3000@gmail.com**

소리 항공

서울 ~ JABOTABEK 원데이 배송 시스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ADP 국제운송)
1588-1330

특송 쿠리어, 핸디캐리 전문업체
20년 노하우 핸디캐리, 자체 특송 쿠리어 통관 시스템

<p>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46, 1층 19번 (공항동, 대한항공 화물청사) Telp : 02-2663-7373 / 2663-1947 Fax : 02-2663-1948 E-mail : support@sorair.co.kr</p>	<p>BINTANG JAYA TRANS Ruko Sentra Bisnis Artha Gading Blok A6A No.16 Kelapa Gading Barat,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 21 4587 4577 / +62 21 2452 1355</p>	<p>JAKARTA MANAGER KIM EUK SOO M : +62 813 8075 1111 KIM KEON WOOK M : +62 812 8411 3703</p>
--	--	---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칼보다 강하다고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의 확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한 것이 1962년이다. 식량 자급, 공업구조 고도화의 기틀 마련, 7억불 수출 달성, 국제수지 개선 기반의 획기적인 확립, 고용 증대, 인구팽창 억제, 국민소득의 획기적인 증대, 과학 및 경영기술의 진흥 및 인적자원의 배양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딱 60년 전이니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이 한걸음 앞을 걸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YS 정권까지 7차 35년을 이어오다가 막을 내렸다. 수출은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고 그 모든 정책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다. 다만 60년 만에 달라진 것은 인구 정책이다. 돌만 날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며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더랬다. 그러던 것이 소원대로 되고 말았다. 해방된 지 80년을 바라보니 머리털이 빠지는 노인들처럼 사람들이 쑥쑥 빠진 마을은 대머리처럼 되어

가고 있다.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아들 딸 낳고 키울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겠는가 말이다. 경제개발이 속속 진행되어 가고 공장을 지어 돌릴 때 가짜 파동이 일어났다. 가짜 석유, 가짜 밀가루, 가짜 라면 사건이 있었고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 파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향간에 '진짜가?' 하고 묻는 일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다. 이어서 '짜퉁'이라는 말이 자리 잡았다. 12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서울에서 "재외동포언론, 팬데믹 언론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보왜곡과 재외동포언론의 역할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었다. 실은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어쩌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완수 교수는 2018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행하는 '미디어와 인격권'에서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

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가 성립되기 위한 개념적 조건으로 정보의 허위성, 의도성, 형식성이 있다. 가짜뉴스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권 차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는 정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라는 정치사회적 토양위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가짜뉴스는 확증 편향성, 부정적 편향성, 그리고 동조화 폭포현상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통해 집단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저널리즘,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저널리즘 교육 및 훈련 핸드북"을 발간하였는데 이 자료는 디지털 시대에 저널리즘에 종사하거나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이자 매우 중요한 지침이다. 저널리즘(Journalism)은 뉴스를 취재하여 대중에게 보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저널리스트(언론인)이고 미디어는 주로 신문과 방송이다. 취재한 자료를 가공(加工)하여 뉴스(정보)를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니 미디어는 정보시스템이다. 정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4가지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우선 사생활(Privacy)

보호다. 그 다음은 제공하는 뉴스나 정보의 정확성이다. 신속한 보도를 한다고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것과 부주의로 인한 것이 있다. 사과를 하거나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다. 세 번째의 윤리는 지적재산의 보호다. 남의 기사나 보도를 허가 없이 복사해 쓰지 않는 것이다. 인용을 할 때에 그 출처를 밝혀야 함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네 번째는 가용성이다. 일반적인 보도자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신체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저널리스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기레기'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인도 개인적인 선호가 있겠지만 보도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정치나 종교, 인종, 성별 등에 편향하면 안 된다. 취재원의 의심스러운 주장이나 보도할 자료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사실(fact)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오타 하나가 숫자인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유튜브나 SNS를 이용하는 유사저널리즘은 얼마



조기조 박사

나 정확할까? 언론이 어느 누구도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펜의 힘이 칼보다 더 강하다고 펜으로 죽이고 살릴 일은 아니잖은가?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인니, 이달 9일부터 전자 도착비자(e-VOA) 시행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11월 9일부터 전자 도착비자(e-VOA)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 도착비자 제도는 오는 11월 15일-16일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땅그랑의 수카르노 하따 국제공항과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우선 시행된다. 이민국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

르면, 전자 도착비자를 이용하는 외국인인 인도네시아로 출발 전에 웹사이트(<https://molin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결제, 발급까지 마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결제 후 승인 받은 e-VOA를 발급받으면 다운로드(또는 인쇄)하여 인도네시아 입국시 출입국 심사대에 제시하면 된다. 이민국 관계자는 이로써 기존의 도착비자 결제를 위해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왕복 항공권 및 비자 비용 50만 루피아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e-VOA는 결제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e-VO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인 관광, 정부 업무 관련 방문, 비즈니스 미팅, 물품 구매 및 경유 등의 목적으로 30일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민국 사무소에서 한 번(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자 도착비자 공식 출범 전 시범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중국 국적자 A씨가 처음으로 전자 도착비자를 이용해 수카르노 하따 공항에 입국했다. 중국에서 온 A씨는 "중국에서 e-VOA를 받아서 왔는데 인니 입국 후 줄을 서지 않고 편리했다"고 이용 소감을 밝혔다. 전자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남아프리카,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네델란



▲수카르노 하따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드,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인도, 영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러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등 26개 국가이다.

[자카르타경제신문]

<http://space.megaenergi.id>
EPC Service & Energy Business (PLTU, PLTA)

창립 20주년
발전소 상업운전 4주년

인도네시아 에너지사업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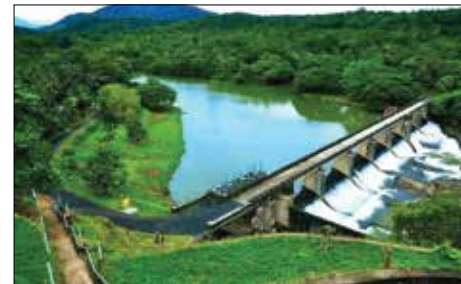
저희 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02년 전기공사 전문업체로 시작하여
전기, 계장, 기계, 건축, 토목 분야에 이르기까지
20년간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EPC 종합건설 서비스 업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에너지 IPP사업에도 진출하여
자체 화력발전소 1기 시공/운영 및 전력판매 중이며,
친환경 에너지 수력 및 태양광 사업에도 지속 투자하며
에너지 사업의 Developer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우랑 화력발전소 (보유지분98%, EPC수행)



라노야뽀 수력발전소 (IPP추진중)



스페이스 본사 및 생산설비 (제1,2,3 공장) 전경

Jl. Damar Blok F1-03 Delta Silicon II, Lippo Cikarang, Cibatu, Cikarang Selatan - Bekasi
Hunting 021) 8990-2215, Fax 021) 8990-2223 / Website : <http://space.megaenergi.id>
연락처 : 사업관리팀 안민성 HP : 0813-1684-5713 / 이메일 : anminsung@megaenergi.id



MECHANICAL, ELECTRICAL ENGINEERING & MANUFACTURING

해외건설협회, '2022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후원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회장 신안식)가 주최하는 「2022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식이 11월 1일(화)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은 해외건설 유공자를 포상하여 해외건설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 해외건설 사업(1965년 태국 고속도로 공사) 수주일을 기념하여 11월 1일에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외 건설 산업이 재도약하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해외건설이 다시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정했으며,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발표(2022.8월)에 따른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해외 건설업계와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 1·2 세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젊은 3세대가 해외현장에 나가면서 각오를 밝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부포상

(15명) 및 국토교통부장관표창(34명) 등 해외건설 플랜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49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다. 은탑산업훈장은 호주 PPP 시장 진출의 기반을 확보하는 등

우리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에 기여한 이상기 GS건설 전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은 투르크메니스탄 등 미개척 신시장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시장 확대에 기여한 임용진 현대건설 부사장이 수상하였다.

* 훈장 3, 산업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34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고, 위기 요인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간다면 세계 4강, 연간 500억 달러, 누적 수주액 1조 달러의 시대를 열어가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다고 말했다.

박선호 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정부가 전 방위적인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정교한 지역별 맞춤형 수주전략이 마련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원팀 코리아의 협력체계가 가동될 것으로 해외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건설기업들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와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치밀한 수주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정부, 공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원희룡 장관은 치사를 통해

“해외건설 연 500억불 수주와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와 각오로 해외건설 3.0 시대를 선언한다면서, 70년대 오일쇼크의 1세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의 2세대, 현재 3세대가 합심하여 해외건설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우디 네오시티,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진출시 스마트 인프라 패키지를 활용해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11월 초 사우디를 방문하여 원팀 코리아 로드쇼를 개최하고 우리기업을 적극 홍보하는 외교 수주전의 첫 발을 내디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발전, 인도네시아 바이어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인도네시아 전력기관과 한국 중소기업 현지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중부발전은 10일 인도네시아 주요 전력기관의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제주 하든클리프 호텔에서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기업중 가장 활발하게 인도네시아 발전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6개 사업장에서 총 5,080MW의 설비용량을 운영 및 건설중에 있고 이러한 현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매년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현지진출이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본격적으로 대면 수출 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현지의 유력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구매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바이어와 중소기업간 인적 교류를



▲한국중부발전 본사에서 8일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왼쪽부터 Krakatau POSCO Energy의 ADRIA WINDU ADLIS 팀장, PJB의 KARYAWAN AJI 이사, 한국중부발전 박영규 기술부사장, 수출 중소기업 협의회 조선영 회장, Trinity Media Prima의 SINTA TRIANI 대표.)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잠재력을 키웠다.

중부발전은 지난 9월부터 71개사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PLN, PJB, Krakatau POSCO Energy 등 5개 기관 총 12명의 인도네시아 바이어 초청명단

을 확정하여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개최한 구매상담회에서는 총 20개 중소기업이 참석하여 혁신인증, NEP 등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을 소개하였으며 협력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국중부발전

의 국내의 발전소 운영능력을 홍보하여 국내 제품들에 대한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구매상담회에 앞서 지난 11월 8일(화)에는 한국중부발전 본사에서 PJB 등 인도네시아 3개 전력기관은 한국중부발전과 수출 중소기업 협의체간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전력기관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인도네시아 발전소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상호 전략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은 한국중부발전 우수 발전소들을 방문하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으면서 한국제품을 자국 발전소에 도입하고 양국 기업간 협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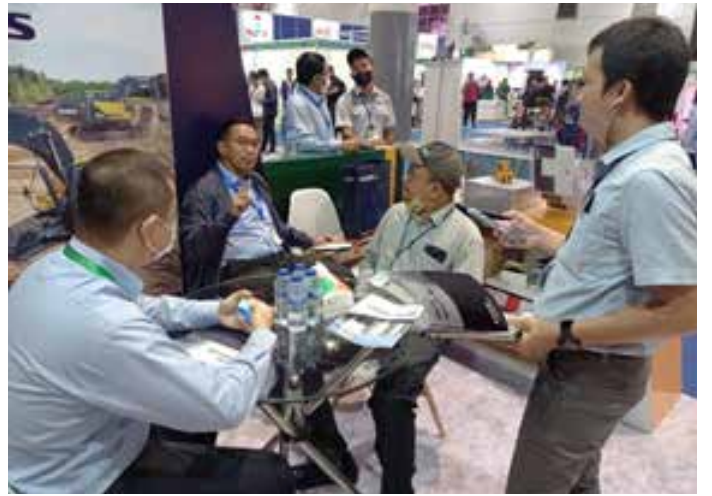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Door Trim, Sun Visor, Headliner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구멍조끼,수영보드,헬멧 및 장갑,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2022년 INAGRITTECH 행사에서 Satrindo와 현대 건설 장비 아시아



자카르타 - 올해 INAGRITTECH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2년 만에 복귀했다. 국제 규모의 최대 농업 전시회 중 하나인 이나그리텍의 올해 복귀는 다시 시장을 직접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최 측으로는 GEM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IExpo)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2022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자카르타의 케마요란. 좋은 점을 반긴 PT 사트린도 미트라 우타마는 자사 제품의 위대함을 뽐내는데 참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트린도가 전시한 제품들을 새롭게 볼 수 있다. 특히 사트린도는 현대건설기계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여 전시 관람객과 초청 게스트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Satrindo는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최고의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Satrindo의 비전과 사명에 따라 HX55S와 HX75S 미니 굴삭기, HL635L 휠 로더 등 여러 주력 제품을 전시했다. 이것은 PT의 결과입니다. 사트린도 미트라 우타마와 PT. 현대건설장비 비아시아는 사트린도를 2022년 1월부터 농-농산물시장 현대건설장비 유통업체로 지정했다. 사트린도는 20년 넘게 현대건설기계의 아시아 제품 유통업체로 활동하며 사트린도를 경험 많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왔다. Okky Loekmaksono, 현대 영업본부장 PT Satrindo Mitra Utama 작업 현장에서 고객을 지원하는 현대 건설 장비 유통업체로서 사트린도의 준비태세를 설명했다.중장비를 선

택할 때 성능 외에도 예비 부품 가용성과 기계 인력 서비스 모두에 대한 사전 판매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 제품의 성능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사전 판매 지원과 사트린도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고객에게 최적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티엔도 PT현대건설장비아시아 총괄은 사트린도를 농경분야 현대특수딜러로 선임함으로써 해당분야에서 현대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PT현대건설장비아시아는 항상 최고의 지원을 제공하고 사트린도와 시너지를 발휘한다. 약 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이나그리텍 2022는 사트린도가 현대건설장비 제품을 소개하고 최고의 품질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환영하는 좋은 출발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토목, 플랜트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3-4686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22-3252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삼한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땅그랑 021 5579-8505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건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PT. SPACE TECHNOLOGY
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IUJ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PT. SSA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 -5736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PT.UTAMA JAYA TEKNIK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땅그랑 021 5577 4507~09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PT. WOO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

PT.HAECHANG DEVELOPMENT
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INI GEO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khong3000@gmail.com, 0821 1122 8827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종 패널 공사
땅그랑 021 5568 5408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공단 및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5-0754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ENGINEERING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 Civil,
M&E, Treading
땅그랑 021 5578-0702

PT. P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PT. F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건축설계 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 기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PT. JEONGSUK TECH ABADI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ding
땅그랑 021 5949-2764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PT. WO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건축자재

PT.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싱글, 방수시트 제조
찌부부르 021-2906-0202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PT.ARI TECH INDONESIA
공장수질개선, 정수시스템
0815 4655-5680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Kontruksi Plat Besi,
Stain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땅그랑 021 5940-0081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e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
tion,
땅그랑 021 5444-393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PT.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PT. KUMGANG INTERNATIONAL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5568 5408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들
찌까랑 021 8990-2723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fon
자카르타 021 522-7983

에스와이패널
EPS 패널
땅그랑 021 2932-5742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PT.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뽕 0721 780 151, 0721 781 457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PT. KCCI CHEMTECH INDONESIA
에폭시 바닥재, 접착제
쯔빠라 0291 751-2706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CV.TROPIKA PERKASA
각종가구 / 건축용 합판
버카시 0811 1929 350

PT. Lineone indonesia
Scaffolding Fabrication
땅그랑 021 5574 1492

PT. TOPSCO STEEL UTAMA
KRAKATAU POSCO 후판공급
찐레곤 0813 8039 7748

PT. KTC MITRA INDONESIA
U-PVC, 알루미늄도어, 창문, 하이샤시
보고르 021 8792-9422

NEXTIN
LED, Special Lighting
자카르타 021 3104-414

PT.indobaja
방화문제작, 철재절단, 절곡
땅그랑반튼 021 5935 5882

ECO INTERNATIONAL
맨홀뚜껑 & 그레이즈
0815 8989 667

PT. IMGLOBAL [PAPERYARN]
건축자재, LVR, DECO, DELUXE TILE
자카르타 021 2247-6211

설 비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찐레곤 025 434-0319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자카르타 021 2902-2342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PT.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토레이
땅그랑 021 558-6446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땅그랑 021 2901-5282

PT. ECO international
맨홀(Manhole),그리스트랩
자카르타 021 2782-8878

인테리어

PT. Muns Cipta Bangun
Interior design & build
땅그랑 021 5541 747

HDG
Interior, Branding,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7205-007

PT.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7884-9247

PT.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PT.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PT. INDO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ABADI TRANS LOGISTI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4683 6025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NIAG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a Logistic Service
땅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찌까랑 021 2956 3356/57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통신, CC TV, 보안

PT. KINEZ
인터넷, 통신, CCTV
땅그랑, 찌까랑, 브카시, 스마랑, 자카르타, 보고르외
021 3002 9000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PT. TELE GLOBE GLOBAL
Elec. Mechanical Eng & Construction,
브카시 021 8240-0880

컴퓨터 윈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중장비, 기계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PT.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땅그랑 021 5572-1090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여행사
자카르타 021 7504-578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재인니 한국 건설협회
가입 및 문의**
박건우 부회장
(0815 1902 4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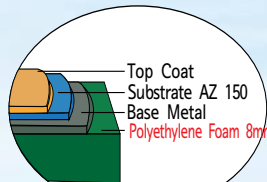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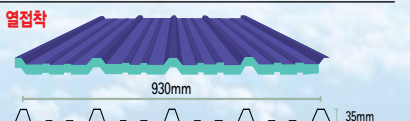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 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 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속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엔저에 일본제조업 ‘유턴’ 움직임... 백화점은 관광객으로 활기

일본 기업 공장 이전 · 신설 발표 잇따라... “노동력 부족은 과제”

32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엔화 가치 하락(엔저)에 일본 기업들이 외국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급속한 엔저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도시 봉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맞물려 여러 일본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 가전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아이리스오마야는 중국에서 제조했던 수납용품 일부를 일본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다.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엔저가 지속되면서 수송비가 급증한 것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전자업체 JVC 켄우드도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일본에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가노현 공장의 생산량은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기업인 스바루는 약 60년 만에 일본에 공장을 신설해 전기차를 양산하기로 했고, 파나소닉도 중국에서 제조하던 청소기를 일본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세라, 미쓰비시전기 등은 반도체와 관련 부품의 국내 제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중국, 동남아시아의 공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메인(핵심 공장)을 일본으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이 생산설비를 외국으로 이전해 2013년에는 제조업에서 해외 생산이 차



▲ 일본 도쿄 긴자의 거리 모습[교도 연합 뉴스 자료사진]

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 흐름은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둔화했고, 최근 일본으로의 ‘유턴’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돌아오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라는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엔저로 외국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노동력 문제는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침체일로에 빠져 있던 일본 백화점 업계는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백화점협회에 따르면 일본 백화점의 면세 매출액은 2019년 3천461억 엔(약 3조3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459억 엔(약 4천30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9월까지 613억 엔(약 5천800억원)으로 다소 올랐다.

이에 도쿄 마쓰야 긴자는 면세점에 자동 번리기 10대를 설치했고, 이세탄 신주쿠 백화점은 이달 말에 면세 카운터를 증설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외에 중국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 일본 백화점의 면세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SCBD Bar Project



2000년 회사 창립 이래,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법인 운영을 통해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 HDG** 입니다.

- Interior Design
- Branding
- Construction
- Factory
- Office
- Exhibition
- Commercial
- F & B
- Residential

We are your partner in building your dream space
for your business & living



Senopati, Kebayoran baru, South Jakarta - Indonesia | linktr.ee/HDGinterior
P : +6221 7205 007 M : +62 812-8759-0706 (ID) / +62 811 1124 998 (KOR) E: admin@hdg21.com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최우수 보험사에 꼽혀

한화생명, '와르타 이코노미 인도네시아 베스트 인슈어런스 어워드' 수상
우수한 재무 성과 ·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높은 평가 받아



▲한화생명 인도네시아가 9일 현지 우수 보험사에 수여되는 '2022 와르타 이코노미 인도네시아 베스트 인슈어런스 어워드' 를 수상했다.(사진=한화생명 인도네시아)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최우수 보험사에 선정됐다. 재무 성과와 보험 상품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는 9일

현지 우수 보험사에 수여되는 '2022 와르타 이코노미 인도네시아 베스트 인슈어런스 어워드' 를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3년 국

내 보험사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 생명 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과 함께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며 인도네시아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발돋움 했다.

실제로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는 작년 2237억6000만 루피아(약 19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2010억8000만 루피아(약 176억 원) 대비 10%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위험기반자본비율(RBC)은 6.636%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1040억9000만 루피아(약 91

억 원)에서 1051억9000만 루피아(약 92억 원)로 소폭 증가했다. 자산 총액은 작년 2분기 2조500억 루피아(약 1797억 원)에서 올해 2분기 2조600억 루피아(약 1806억 원)로 늘어났다.

보험 상품군도 다양화 했다.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는 작년 '한화프리미어건강보험'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코로나19 맞춤형 상품인 '한화스마트CI플러스 중환자보험'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는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한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한 e-클레임' 과 '가상 클리닉 서비

스' 를 제공했다. 이에 더해 향후 다양한 경품과 보너스 혜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남궁훈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인도네시아 모든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임직원, 협력사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 없이 혁신 하겠다" 고 강조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기존 인버터 타입 모델 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